



다문화 김치 4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북구자원봉사센터 앞마당에서 필리핀 출신 등 다문화가정 여성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김장을 담고 있다. 이날 만들어진 김치는 북구지역 저소득층 가정 등에 보내진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청와대 행정관이

채군 인적사항 열람 요청”

청와대 시인

청와대는 4일 시설담당 행정관 조 모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휩싸였던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열람토록해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시설 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금년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지계 국장에게 채군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군의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조 국장으로 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행정관은 이날자로 직위해제되고 징계위에 회부됐다고 이 수석은

덧붙였다. 조 행정관은 부이사관급으로 고위공직자 사정업무와는 무관한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소속이다. 조 행정관의 직속상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다.

현직에 있는 청와대 부이사관급 행정관이 채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혼외자 의혹이 불거져 낙마한 채 전 검찰총장의 사퇴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채군의 인적사항 열람을 청와대 조 행정관에게 의뢰한 당사자로 지목된 안전행정부 공무원 김씨는 “채군의 인적 사항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유치원 선생님 꿈 앓아간 지독한 가난

광주 광산구 아파트서 20대 여대생 투신 사망

알바 2개 하며 학비 ... 현실의 벽에 좌절한 듯

밤 늦게까지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유치원 교사의 꿈을 버리지 않았던 20대 여대생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일 오전 7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광주지역 모 대학 1학년 A(여·24)씨가 아파트 화단에 쓰러진 채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 이모(68)씨가 발견,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5층에 사는 A씨가 지난 2일 밤 11시에 아파트 15층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경비원을 만나 내려온 점을 엘리베이터 CCTV 등을 통해 확인했다.

경찰은 또 A씨가 같은 날 밤 11시 30분께 중학교 동창(여·24)에게 “사랑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10여명의 친구들과 “안녕히 잘 있어”라는 내용으로 전화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폐집환을 앓고 있는 아버지 대신 건물 청소원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63)를 도와 대학생인 여동생의 생계를 책임지다시피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 뒤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던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그러나 일하는 도중에도 평소 지냈던 꿈을 포기하지 못해 5년만인 올해 광주지역 대학 유아교육과에 진학했고 생활비에 1년 학비 500만원까지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2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힘든 상황에도 A씨는 주변 친한 친구들조차 A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지 못할 정도로 활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를 꿈꾸던 20대 늦깎이 여대생은 가난에 짓눌린 무게를 버려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경찰은 A씨가 힘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학비를 벌고 가정 생계에도 보태야 한다는 심리적 무게감과 생활고를 끝내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주변인들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기차 메카’ 불신의 영광

검찰, 전기차 생산업체 AD 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영광군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친환경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질 않고 있다. 감·경이 대마산단 내 전기차 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미끼로 수백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국내 전기차동자 생산업체 예코넥스사 대표를 구속한 데 이어, 같은 산단에 투자를 약속했던 AD

모터스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어서다.

전남도, 영광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설익은 청사진만 믿고 투자했던 피해

자들에 대한 사과·구제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전기차 사업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 기업들의 투자 마인드 위축 및 기업에 투자할 투자·자본가 발골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전기차 생산업체 AD모터스와 이 회사의 투자사인 토자이홀딩스의 주가를 조작해 3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구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구씨는 AD모터스의 유영선 대표와 토자이홀딩스 하종진 회장의 부탁으로 2009년 7월~2010년 2월 7274회에 걸쳐 AD모터스의 시세를 조작해 주가를 4905원에서 1만3550원으로 176%가량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D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평균 부당이득은 24억3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북구·여수시 음주운전 사고 최다

광주와 전남지역 지자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북구와 여수시로 나타났다.

4일 안전행정부 등이 공개한 지난 해 지자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광주에서 1207건이 발생, 16명이 숨지고 2316명이 다쳤다. 전남은 1344건에 사망 51명, 부상 2430명이다.

광주 북구는 341건(사망 3명, 부상 670명)이, 여수는 230건(사망 5명, 부상 413명)이 발생했다.

사망자 수는 서구와 광산구가 각 5명, 북구 3명, 남구 2명, 동구 1명 등이다.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사망자는

와 장성 각 5명, 목포, 장흥 4명 순이며 사망자가 없는 지자체는 나주, 곡성, 구례 등 5곳이었다.

전국적으로는 2만9093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 815명이 숨지고 5만2346명이 다쳤다.

음주운전을 포함한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광주가 1.88명, 전남은 무려 4.1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전국 평균은 3.39명이다.

시군별로 영암이 11.47명으로 단연 많았으며 해남 9.05명, 장성 8.65명, 나주 8.40명, 진도 8.28명 등의 순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1원칩



해남교통노조 전 위원장 수사촉구

민주노총 해남교통노조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9년 과업 당시 노조위원장 이었던 박모(46)씨가 현재 해남교통의 대표 부인 김모씨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박씨는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며 반박했고, 금융전문자료를 지목된 인물도 “금융권 전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800만원 명품 가방은 버리고~



○...예식장에서 결혼 기념 사진을 찍는 틈에 하객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40대 여성이 경찰서행.

○...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윤모(여·44)씨는 지난날 2일 낮 12시30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S웨딩홀 2층 예식장에서 하객 최모(여·25)씨가 지인들이 모여 결혼 기념 사진을 찍는 사이에 현금 25만원이 든 800만원 상당 샤넬 핸드백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

○...윤씨는 마치 하객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가 혼란을 틈타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돈은 빼내고 가방은 ‘짜퉁’인 줄 알고 버스 정류장에 버리고 갔다”고 진술.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국내개발, 국내생산] 특허 제10-2013-0103125

삼각쿠션이 무릎관절 하중부담 경감과 무릎보호역할

삼각쿠션과 방석의자 일체형디자인
몸에 딱 감기는 인체공학적 구조로 편안함

허리벨트형으로 편안한 착용감

무릎걱정 디세요

발일 할 때 무릎에 체중 7배 전해져

"MBC뉴스데스크", "MBC이브닝뉴스" 방영

포그리고 일 할 땐 역시 포그리

무릎통증 예방

포그리착용이 필요할 때

- ☑ 포그리고 발일 작업 시
- ☑ 포그리고 하우스 작업할 시
- ☑ 포그리고 농식품 가공 작업시
- ☑ 포그리고 산업체 웅점 또는 조립작업시
- ☑ 포그리고 레저 등 낚시 할때
- ☑ 포그리고하는 그 외 모든 작업시

062)652-2587

NAVER, Dailym, 포그리, 에덴하트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회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결혼 정보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초초등학교출연, 전주고등학교출연]

성사를 호반1위
서울대역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男	초혼	女	추천회원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재혼

男	女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8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